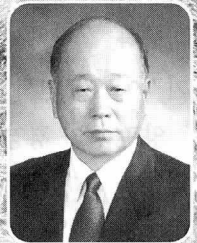


기고 \_1

# 젓소 완전배합사료공장의 설립과정 이야기 ②



이인형  
전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장

▲건초제조(축산과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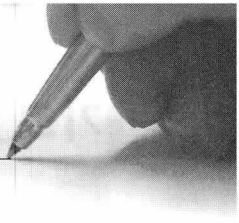
젓소의 사양관리가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가? 하는 것은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1일 20kg 이상 생산되는 젓소는 젓 생산능력이 좋은 개체로 분류되었으니 현재의 상황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젓소의 정상적인 사육을 위해서는 좋은 조사료가 우선인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초지조성, 담이작사료작물재배 권장 및 옥수수매초제조기술 향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고, 일부 낙농가와 미국 등 조사료 수출대상국으로부터 1985년부터는 알파과 건초와 펠렛을 수입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1980년대 초부터는 경제기획원이 주축이 되어 주장한 국제적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농산물 등은 수입하여 공급한다는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이 대세를 이루면서 농업분야의 예산확보까지도 어려운 시기였다. 그리고 1985년 당시에는 수입자유화품목을 결정하는 것이 큰 행사였

으며 경제기획원 경제개발기획단 김기환 단장(차관급)이 관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1985년 4월 어느 날, 축산국장께서 경제기획원에서 수입자유화품목을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나는 참석할 수 없으니 낙농과장이 대리로 참석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김한곤 농정국장(차관역임)을 모시고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중요한 사항인 만큼 각 부처에서는 모두가 국장이 참석을 하여 자기부처 품목의 수입자유화를 차단하려고 열심히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농림부담당 품목에 대해서 토론이 이어져, 농정국장께서 설명을 하였는데 축산국소관인 통조림, 요구르트, 알파과 건초와 알파과필 등은 개방품목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때에 농정국장께서 축산국 담당과장인 이인형 과장이 참석하였으니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하여 필자가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을 하였는데 김기환 단장께서는 이과장의 설명은 잘 들었으나 불가피하게 수입자유화품목(輸入自由化品目)으로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나오는데 김기환 단장께서 이 과장 어디를 가는 것이냐고 묻기에,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저는 어차피 제 자리를 지킬 수가 없으니 사표를 제출하러 가야겠습니다.” 하고 회의장문을 여는 순간 “이 과장 잠깐만 내 이야기를 듣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내 자리로 가서 앉으니, 단장께서는 조사료 개방이 이 과장이 사표를 내야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고 묻기에, 담당과장으로서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그러면 축산분야 품목은 수입자유화품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물론 그 다음날 경제기획원장관, 김기환 단장과 황인성 농림부장관이 자유화품목을 마지막결정을 하는 3자 회의에서 어제 나의 행동에 대하여 김기환 단장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들은 장관으로부터 내가 잘하였다는 칭찬도 들었다. 지금에 와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 후에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어차피 개방되었고, 수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의 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여본다.

조사료의 수입현황을 보면 1987년에 8천톤에서 1990년 63천톤, 1995년에 170천톤, 2000년에 599천톤, 2006년에 727천톤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품목은 알파파 및 목건초, 알파파 펠렛, 옥수수대등 다양한 품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수출국은 미국이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캐나다 순으로 되어 있다.

한편 조사료생산여건, 농촌 노동력 감소, 젓소의 능력향상에 의한 소득증대와 경영효율 극대화를 하기 위하여 완전배합사료를 위한 사양시험이 1990년 전후에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현 축산과학원)에서는 젓소에 완전배합사료급여가 젓소의 산유량 및 사료이용성에 미치는 영향, 알파파 큐브 급여가 착유우의 산유량 및 사료이용효율에 미치는 영향 등 다수의 시험연구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늦은 감이 있었지만 1988년에 젓소에 조사료와 농후사료의 적합한 급여비율을 구명하기 위하여 착유우에 대한 농후사료(濃厚飼料)와 조사료(粗飼料)의 경제적 급여수준에 관한 연구도 실시되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완전배합사료를 이용하는 낙농가가 증가하는 분위기는 낙농가가 젓소의 영양상태의 불균형 및 생산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여 주춤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 가축사육규모의 기업화 및 가축계열화사업방향으로 축산산업의 구조조정이 이행됨에 따라 가축별 전문사료공장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일반배합사료업체와 한국사료협회의 반대를 감수하면서 닭 전문배합사료공장을 1989년에 허가하였고, 1992년에는 필자가 초지사료과장으로 근무하는 해에 돼지 전문사료공장과 젓소 완전배합사료공장을 허가 하였다.

특히 젓소완전배합사료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을 보여, 1992년에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에 처음으로 허가를 하였

다.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1993년부터 23억 1천만원을 축산발전기금에서 용자 지원하고, 1994년부터 옥수수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였다. 그후 서울우유조합에서는 젖소 완전배합사료



▲완전배합사료 생산(광주TMR배합소)

건설과정과 1995년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완전배합사료를 이용하는 농가가 1993년에 64개 목장에서 1996년에는 539개 목장으로 확대됨으로서 정착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한편 완전배합사료의 생산 및 공급량도 1993년에 3,212톤에서 1996년에는 60,809톤으로 증가하였고, 젖 생산량도 완전배합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일평균 두당 20.52kg에서 22.74kg으로 증가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현재는 완전배합사료공장(서울우유조합에서는 TMR 배합소로 명칭을 사용)을 12개소를 지역별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허가를 한 광주 TMR배합소를 이용하는 낙농농가는 85개 농가에 월 1900톤~2000톤을 공급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권역에 12개 TMR배합소가 있으며 전체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원수 2400농가 중 1000농가(조합원이 아닌 일반농가가 일부 포함)가 완전배합사료를 이용하고 있고 월 17000톤~20,000톤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완전배합사료공장은 1995년 46개소에서 2006년에는 19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우유협동조합 권역내의 낙농가라면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여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 농가들의 41.7%가 완전배합사료를 이용한다는 것과 전국에 194개소의 공장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배합사료체제가

정착하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완전배합사료공장에서 생산하는 사료의 종류는 어린송아지사료와 고능력우사료를 포함하여 7종을 생산하고 있으며, 배합에 사용되는 사료의 종류는 배합사료공장에 위탁하여 생산·공급받는 농축농후사료, 수입건초, 맥주박, 당밀, 면실, 비트 펄프 및 각종 영양제 등 첨가제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날의 이야기지만, 젖소 완전배합사료공장을 허가 하면서 배합사료협동조합장인 H씨는 이인형이가 공장을 허가 하고, 그 공장을 맡기로 하였다면서, 이인형 과장을 공직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등 많은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H씨는 나를 직접만나는 자리에서는 친절이 나를 대하면서 반대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1993년도에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으로 부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가 들려서 나는 많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그 어려운 여건에서 완전배합사료공장의 허가를 강행한 판단은 잘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축산산업이 자유무역체제로 전환하는 또 한번의 어려운 고비를 맞아 잘 적응하여 더욱더 견고한 국가 기간산업(國家基幹産業)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고자한다. ㉟